

#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 방글라데시

People's Republic of Bangladesh

2019년 12월 30일 | 책임조사역(G3) 이광준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동향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 일반개황

<b>면적</b> 148천 km <sup>2</sup> 	<b>인구</b> 1.7억 명 (2019 <sup>e</sup> ) 	<b>정치체제</b> 의원내각제 	<b>대외정책</b> 비동맹중립 
<b>GDP</b> 3,175억 달러 (2019 <sup>e</sup> ) 	<b>1인당GDP</b> 1,906달러 (2019 <sup>e</sup> ) 	<b>통화단위</b> Taka 	<b>환율(\$기준)</b> 83.5 (2018) 

- 벵갈만 연안에 위치하는 방글라데시는 국토의 3면이 인도와 접하고, 동남부 지역 일부는 미얀마와 접하고 있음. 세계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국가로(1km<sup>2</sup>당 1,240명, 도시국가 제외), 향후 내수 시장의 성장잠재력이 있음.
- 1947년 인도와 파키스탄이 영국으로부터 분리 독립할 당시, 이슬람교를 믿는 동벵갈 지역(현 방글라데시)은 파키스탄의 일부인 동파키스탄 주로 독립하였음. 1971년 파키스탄 중앙정부의 차별 정책에 반발한 아와미 연맹이 동파키스탄의 분리를 주장하면서 방글라데시로 국명을 정하고 파키스탄에서 탈퇴하면서 독립하였음.
- 최근 셰이크 하시나(Sheikh Hasina) 총리의 3연임으로 정치적 안정성이 유지되는 가운데 6%대의 높은 경제성장세를 바탕으로 2018년 3월 최초로 최빈국 졸업 요건을 충족하는 등 경제정책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음.

##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73. 12. 18 수교(북한과는 1973. 12. 16)

**주요협정** 무역경제협력협정('73년), 문화협정('79년), 항공협정('79년), 사증면제협정('83년), 이중과세방지협약('83년), 투자보장협정('86년), 경제기술협력협정('93년), 과학기술협력협정('95년), 무상원조협정('14년)

## 교역규모

(단위 : 천달러)

구분	2016	2017	2018	주요품목
수출	1,158,421	1,276,319	1,238,299	합성수지, 철강판, 종이제품
수입	293,112	285,756	346,507	의류, 운동-레저용품, 신변잡화, 가죽

**해외직접투자현황(2019. 9월말 누계, 총투자기준)** 894건, 345,099천 달러

## 국내경제

(단위: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sup>e</sup>
경제성장률	6.8	7.2	7.6	7.9	7.8
소비자물가상승률	6.2	5.7	5.6	5.6	5.5
재정수지/GDP	-4.0	-3.4	-3.3	-4.6	-4.8

자료: IMF, EIU

### 민간소비와 투자 및 봉제품 수출 증대로 7%대 경제성장세 지속 전망

- 2010년 이후 6%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 중인 방글라데시 경제는 2018년 해외근로자 송금 증가에 힘입어 민간소비가 전년대비 11% 증가(GDP의 약 70.8%)하고, GDP 대비 30%를 초과하는 총투자의 증가세가 지속되었으며, 봉제품 등 상품수출이 전년대비 9.6% 증가하면서 7.9% 성장하였음.
- (봉제산업) 방글라데시 의류 제조·수출협회에 따르면, 봉제산업 노동자는 400만 명 규모임. 방글라데시 봉제품의 2018년 총수출규모는 329억 달러로 상품수출의 약 85%를 점유하였으며, 주요 수출지역은 EU(62.5%), 미국(17.8%) 순으로 집계됨.
- IMF 등은 최근 보고서에서 방글라데시 경제가 대내외 수요 증가세의 지속을 바탕으로 7~8%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였음.
- 방글라데시 현지 대표 싱크탱크인 정책대화센터(Center for Policy Dialogue, CPD)도 2018/19회계 연도의 경제성장률을 7.9% 이상으로 예상하였음. 한편, CPD는 방글라데시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경제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은행 부문 개혁, 세제 개편 추진, 공공 부문 지출 균형 유지 노력이 요구됨을 강조하였음.

경제성장률 전망(%)	세계은행	IMF	ADB	EIU	정부*
2019	8.1	7.8	8.1	8.1	8.1
2020	7.2	7.4	8.0	7.7	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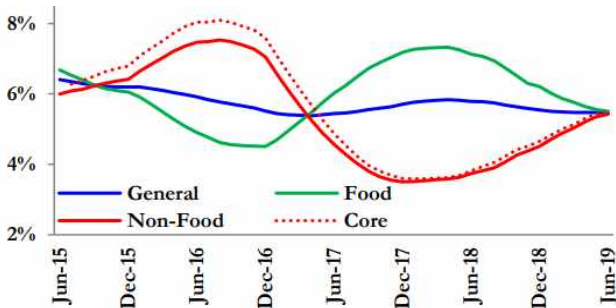
자료: 각 기관 발표자료 (\* 방글라데시 통계청/재무부)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5% 중반대 유지 예상

- 2018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식음료 품목의 가격 상승 영향으로 전년과 유사한 5.6%를 기록하였음.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은 2019년 7월 발표된 통화정책 성명서에서 2018/19회계연도('18.7월 ~ '19.6월)의 연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5.47%로, 방글라데시 정부의 목표인 5.60% 이내로 관리되었다고 밝혔음.
- 방글라데시의 물가상승률은 2011년 11.5%를 기록한 이후 점차 하락하여 2016년 이후 5%대 중후반을 기록 중임. 최근 방글라데시 소비자물가는 자연재해로 인한 식음료 부문의 가격 불안정성이 존재하는 가운데 국제유가 등의 영향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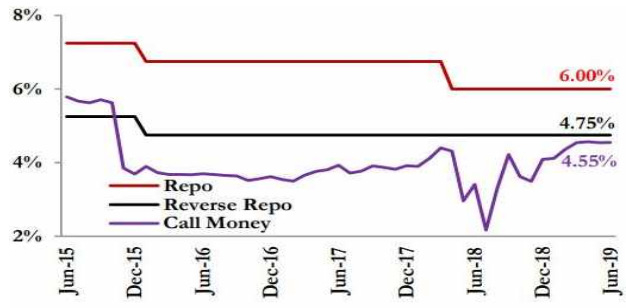
## 국내경제

<12개월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Source: Bangladesh Bureau of Statistics

<콜머니 및 정책금리(Repo)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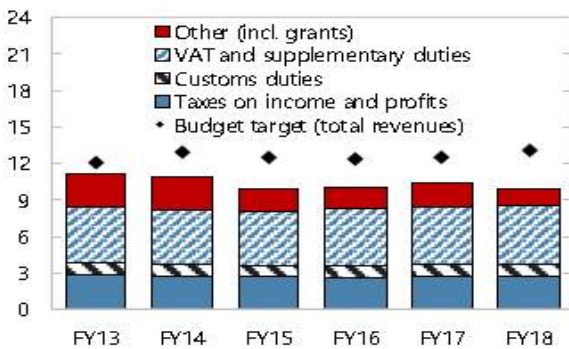
Source: Bangladesh Bank

- 방글라데시 정부의 2019/20회계연도의 연간 소비자물가상승률 관리 목표는 전년대비 소폭 하락한 5.5%로 설정됨. IMF는 방글라데시의 비(非)식음료 품목의 상승세를 감안하여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019년 5.46%를 기록하고 향후 5.5%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세제개편 및 정부의 관리능력 제고가 시급한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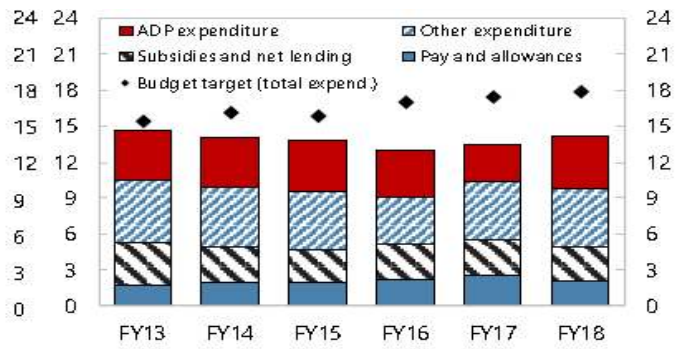
- IMF에 따르면 2018년 GDP 대비 -4.6%를 기록한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2019년 확대되어 GDP 대비 -4.8%를 기록하고, 향후 -4% 후반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재정수지 적자는 정부의 관리수준(GDP 대비 -5%) 이내이나, 정부 수입과 지출이 매년 반복적으로 계획에 미달하며 정부수입 부족분이 지출 축소 분으로 상쇄되었다는 점에서 관련 제도 개선 및 정부의 관리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

<회계연도별 중앙정부 수입(GDP 대비 %)>



Source: Ministry of Finance

<회계연도별 중앙정부 지출(GDP 대비 %)>



Source: Ministry of Finance

- GDP의 10%에 미달하는 중앙정부 수입은 주변국인 스리랑카(14%), 미얀마(18%) 대비 부족한 수준임. IMF는 방글라데시 정부가 설정한 2019/20회계연도 정부수입 목표인 GDP 대비 13.4% 수준 달성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음.
- 또한 2012년 제정된 이후 2019년 7월 1일부터 비로소 시행된, 기업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도 최저 과세표준액 상향(약 9.4만 달러 → 35.3만 달러), 차등세율 적용(기존 15%에 5%, 7.5%, 10% 세율 구간 신설) 등으로 세수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임.

## 대외거래

###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달러,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sup>f</sup>
경 상 수 지	2,580	931	-5,985	-7,593	-6,490
경상수지/GDP	1.2	0.4	-2.3	-2.6	-2.0
상 품 수 지	-6,120	-6,244	-12,966	-16,913	-17,442
상 품 수 출	31,736	34,122	35,301	38,687	38,881
상 품 수 입	37,856	40,366	48,267	55,600	56,322
외 환 보 유 액	25,801	30,295	31,289	29,973	31,163
총 외 채	37,175	45,165	54,737	60,188	64,062
총외채잔액/GDP	17.9	19.2	20.9	20.9	20.2
D.S.R.	5.3	5.0	5.9	6.8	7.3

자료: IMF, EIU

### 경상수지 적자 및 경상이전수지 흑자 지속 전망

- 최근 인프라 투자 확대에 의해 자본재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 이후 상품수지 적자 규모가 크게 확대되면서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음.
- 2019년 글로벌 무역 위축에 따라 상품 수출의 증가세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나, 식음료 품목의 순수출 전환으로 상품수지가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며,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도 -2% 수준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 한편, 2018년 원조자금 등으로 구성된 경상이전수지가 161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면서 상품수지 적자의 대부분을 상쇄하였음. 장기간 유입되는 원조자금의 특성상 경상이전수지 흑자는 향후 지속될 전망이다.

## 외채상환능력

### 외환보유액 및 외채비중은 경제규모 대비 양호한 수준

- 외환보유액은 상품수출 및 해외근로자 송금액 등의 변동에 따라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며, 2018년 이후 월평균수입액의 5.3개월분 및 단기외채 잔액대비 2배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총외채잔액은 2017년 전년대비 20.9% 증가한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어 2019년엔 전년대비 6.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경제성장 지속으로 GDP 대비 비중은 향후 20% 대 이하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총수출 대비 비중도 2019년 141%를 기록한 이후 완만하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구조적취약성

###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부정부패의 척결을 위한 노력 부족

-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2019년 부패인식지수에 따르면, 방글라데시는 전체 조사대상 180개국 중 149위로 하위권을 기록하였음. 방글라데시의 부패인식 수준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 중에서도 북한, 아프가니스탄, 캄보디아에 이어 4번째로 열위한 것으로 나타남.
- 현 정권의 부패를 견제해야 할 야당인 방글라데시 국민당(BNP)도 칼레다 지아(Khaleda Zia) 총재가 횡령 및 뇌물 수수로 2018년 2월 총 17년형을 선고받은 상태임.

### 원조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한 경제구조

- 방글라데시 재무부에 따르면 2018/19회계연도의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GDP의 -4.8%이며, 재정수지 적자 보전을 위한 원조자금 유입액 규모는 GDP의 1.3% 수준으로 전체 재정수지 적자의 약 27%를 원조로 보전하는 구조임. 원조 수혜규모는 2015/16회계연도 이후 증가 추세\*이며,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한 정부지출 증가를 감안할 때 원조자금 유입 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 \* 회계연도별 원조자금 유입액(백만 달러) : 3,564(2015/16) → 3,677(2016/17) → 6,370(2017/18) → 4,079(2018/19) 2017/18 회계연도의 급격한 원조자금 유입액 증가는 Ruppur 원자력발전소(1,200MW급, 총 건설비 141억 달러) 건설 관련 러시아로부터의 자금 유입에 따른 것임.

## 성장잠재력

### 풍부한 인구를 바탕으로 한 내수시장 성장잠재력 보유

- IMF에 따르면 방글라데시의 인구 규모는 세계 8위 수준으로 2019년 약 1.7억 명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인구밀도는 1km<sup>2</sup>당 1,240명으로 홍콩, 싱가포르 등 도시국가와 면적 1,000km<sup>2</sup> 이하인 국가를 제외할 경우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대규모 인구를 바탕으로 한 내수시장 성장잠재력이 있음.

## 정책성과

### 2018년 처음으로 최빈국 졸업 요건 충족 등 경제정책 성과 가시화

- 방글라데시는 2010년 이후 6%를 초과하는 경제성장을 지속한 결과 2018년 3월 UN이 지정한 최빈국 졸업 요건(1인당 GNI, 인적자산지수, 경제적 취약도)을 모두 최초로 충족하였음.
- 2021년과 2024년 예정된 두 번의 평가에서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UN경제이사회에 승인을 통해 3년 뒤 2027년 최빈국(LDC) 지위를 졸업하게 됨.
- 또한, 상대적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의 비중이 점차 상승하는 등 경제구조도 개선되고 있음.
- 재무부에 따르면 농업 부문의 GDP 비중은 2005/06회계연도에 19%를 기록하여 최초로 20% 아래로 내려간 이후 점차 하락하여 2018/19 회계연도에 13.6%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며, 동 기간 산업(제조업 포함)의 GDP 비중은 25.4%에서 35.1%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정치동향

### 하시나 총리의 장기집권 체제가 유지되고 있으나 민주주의는 후퇴한 것으로 평가

- 2018년 12월 30일 실시된 총선에서 하시나 총리가 이끄는 아와미 연맹(AL)이 비례대표 의석 등을 제외한 총 298석 중 288석을 차지하며 압승하였음. 2009년 1월 취임 이후 3연임 중인 하시나 총리(72세)는 이번 선거 승리로 2023년 말까지 총 15년 간 집권하게 됨. 현재 의회 내 견제세력이 없고 야당이 정치적으로 위축된 상황에서 집권 여당의 독주는 지속될 전망이다.
- 야당인 방글라데시 국민당(BNP)은 2018년 2월 칼레다 지아(Khaleda Zia) 총재가 횡령 및 뇌물 수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다른 야당 인사들도 민·형사상 혐의로 기소당하여 정치적 입지가 축소된 상황임.
- 국경없는 기자회(RSF)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방글라데시에서 정보통신기술법 위반으로 언론인 25명이 체포되었고, 블로거와 SNS 이용자 수백 명이 처벌받는 등 선거를 앞두고 언론 통제가 행해진 것으로 파악됨.

## 사회동향

### 정부의 강력한 통제로 최근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테러 위협은 감소

- 방글라데시는 국민의 98%가 벵갈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종교 비중도 이슬람교 89%, 힌두교 10%로 문화적 동질성이 높은 편임.
- 그러나 2010년 전범재판소 개소 이후 전범재판이 야당의 주요 인사에 대한 탄압으로 악용되어 여야의 대립이 극심해졌고 이에 대한 대규모 시위 발생, IS(이슬람국가) 세력 유입 등으로 외국인에 대한 테러도 빈발하였으나, 정부의 강력한 통제와 처벌로 2017년 이후 대규모 테러 사태는 발생하지 않고 있음.

### 정치·경제적 상황의 개선을 요구하는 시위의 지속적 발생

- 2018년 12월 총선을 전후하여 공무원 고용할당제, 교통안전 대책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으며, 2019년 1월 초 봉제산업 근로자들이 최저임금 추가 인상을 요구하는 전국적인 시위를 벌이는 등 소요사태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 방글라데시 봉제 근로자들의 시위로 2018년 12월 8,000타카(약 95달러)였던 월 최저임금은 8,875타카(약 105.7달러)로 재조정되면서 100달러를 초과하게 되었음.

## 국제관계

### 전통적 우방인 인도와의 협력 강화

- 인도는 1971년 방글라데시-파키스탄 전쟁 당시 방글라데시의 최대 지원국이었으며, 친(親)인도 성향의 하시나 총리 집권 이후에는 양국 간 관계가 더욱 강화되는 양상을 보임. 또한 인도는 2018/19회계연도 기준 방글라데시의 제2의 수입상대국(전체 수입액의 14.7% 점유)으로 경제적 영향력이 막강함.
- 방글라데시가 동(東)파키스탄이었을 당시 독립을 주도하여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초대 대통령 셰이크 무지부르 라흐만은 독립 과정에서 인도의 도움을 받았으며, 집권 이후에는 인도와 우호 관계를 유지하였음. 무지부르 라흐만의 외교기조는 딸인 셰이크 하시나 현 총리에게로 이어지고 있음.
- 2018년 10월 방글라데시 정부 산하 국제전략연구소는 방글라데시가 정치·문화·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인도를 가장 중요한 파트너 국가로 삼고, 상호 협력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음.
- 2019년 10월 하시나 총리는 인도를 방문하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양국 협력 강화를 위하여 인도가 방글라데시의 주요 항구인 차토그람과 몽클라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양국 청소년 문제 협력, 대학 간 교류, 하천 용수공급 등 총 7개 분야의 협력에 합의하였음.

### 중국의 경제·군사적 영향력 확대 전망

- 중국은 방글라데시에 원자로, 기계류, 면, 전기부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2018/19회계연도 기준 방글라데시의 제1의 수입상대국임(전체 수입액의 26.1% 점유). 또한 중국은 방글라데시의 최대 투자국으로, 2018년 방글라데시에 10억 3,000만 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집계되었음.
- 방글라데시 정부는 전력 시스템 업그레이드 등을 위해 중국과 215억 달러 규모의 일대일로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짐.
- 또한 중국은 방글라데시의 주요 군수품 조달 국가로, 2019년 9월 12억 달러 규모의 방글라데시 잠수함 기지 건설을 중국이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양국 간 군사적 협력도 확대되는 양상임.

### 로힝야족 난민 송환 문제로 인한 재정부담으로 미얀마와 갈등 가능성 존재

- 2017년 8월 미얀마의 무슬림 소수민족 로힝야(Rohingya) 반군의 미얀마 군경 초소 공격에 대한 군부의 토벌이 인종청소로 비화되어 70만여 명의 로힝야족 주민이 방글라데시로 피난, 2019년 5월 기준 약 100만 명의 로힝야족 난민이 방글라데시 Cox's Bazar 주(州)의 난민 캠프에서 임시 거주 중임.
- 방글라데시와 미얀마는 2017년 11월 23일 난민의 송환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나, 로힝야족에 대한 미얀마 시민권 부여 및 안전 보장이 담보되지 않아 송환 시도가 거듭 실패하여 2019년 12월 현재 까지 송환된 로힝야족은 없음. 사태 장기화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난민 사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원조가 점차 감소하고 있어 향후 방글라데시의 재정적 부담 증가와 이로 인한 미얀마와의 갈등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 방글라데시 정책대화센터(CPD)는 2018년 10월 로힝야 난민 관련 보고서에서 하루 300명의 난민이 미얀마로 돌아간다면 송환 완료시까지 총 12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는 한편, 송환되는 난민이 전혀 없을 경우 최소 5년 간의 난민 캠프 유지비용은 총 7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음.



## 외채상환태도

### OECD 회원국 ECA 금융지원액의 연체율은 미미하고, 채무재조정 내역 없음

- 2019년 6월 말 기준 OECD 회원국 ECA 지원잔액(ODA 불포함) 36.6억 달러(단기 6.6억 달러, 중장기 30억 달러) 중 중장기 지원잔액 14.6백만 달러를 연체 중으로, 연체비율은 0.4% 수준임. 또한 2019년 12월 현재까지 채무 탕감 또는 재조정 내역이 없음.

## 국제시장평가

###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5등급 (2019.06)	5등급 (2018.06)
Moody's	Ba3 (2019.10)	Ba3 (2018.10)
Fitch	BB- (2019.11)	BB- (2018.12)

### OECD는 5등급, 국제신용평가사들은 기존의 투자부적격 등급 유지

- OECD는 2015년 6월 지속적인 경제성장, 글로벌 의류업체의 투자 지속 전망 등을 바탕으로 방글라데시의 국가신용도 등급을 5등급으로 1등급 상향 조정한 이후 2019년 12월 현재까지 유지 중임.
- 국제신용평가사들은 높은 경제성장률, 충분한 외환보유액에 따른 양호한 대외지급능력 등에도 불구하고 취약한 세수기반, 열악한 투자환경 등을 감안하여 방글라데시에 대해 기존의 투자부적격 등급을 계속 유지하고 있음.

- 방글라데시 경제는 2010년 이후 6%를 초과하는 성장세가 지속되면서 제조업 등 산업 비중이 확대되고, 2018년 3월 최초로 최빈국 졸업 요건을 충족하는 등 경제정책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음. 2019년에는 민간소비 및 봉제품 수출 증대에 힘입어 7% 후반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동 추세는 향후 수년 간 지속될 전망이다.
- 다만, 재정수지 적자를 대외원조로 충당하는 구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부지출의 증가가 예상되어, 세수 확보가 경제성장 지속을 위한 과제로 분류됨. 또한 열위한 부패인식 수준이 외국인 직접투자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개선시키는 정부의 관리 노력이 필요함.
- 한편, 셰이크 하시나 총리가 이끄는 아와미 연맹은 2018년 12월 총선에서 압승하여 장기집권 토대를 마련하였으나, 민주주의는 후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민주주의와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잇따라 일어나고 있어 사회적 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있음.
- 향후 기업경영여건 개선, 인프라 확충, 부정부패 척결 노력 등이 방글라데시의 최빈국 졸업 여부 및 국가신용도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